

전남산림연구원, 생달나무 정유 활용 화장품 국산화 성과

고가 기능성 향장원료 대체 기대
플라반-3-올 성분 미백·주름 개선
전남 바이오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수출 150억달러 시대를 여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며 '케이(K)-뷰티 2.0'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국가 간 생물자

원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해외 원료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남 자생 자원을 활용한 이천 원료 국산화는 생물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한 고가의 기능성 향장원료를 생달나무로 대체함으로써 막대한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는 한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 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미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달나무는 예로부터 잎과 열매, 수피 등이 차나 약용으로 활용된 대표적 식·약용 산림자원이 다.

생달나무 추출물에서 확인된 플라반-3-올(flavan-3-ol) 계열의 에피카테킨(epicatechin)은 멜라닌 생성 억제와 피부노화 완화 가능성이 있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연구원은 생달나무의 효능에 주목해 고부가 가치 향장 소재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생달나무 추출물이 여성 질환 관련 원인균인 칸디다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및 소취 효과가 있음을 밝혀 특허를 등록하는 등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여성용품 시제품으로도 개발했다. 또한 생달나무 정유의 시원하고 향긋한 유칼립투스(Eucalyptol) 향이 우울감 개선 및 기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학술 논문을 통해 입증하는

등 생달나무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밝혀왔다. 현재 생달나무의 테라피 효과를 담은 디퓨저 등 향기 제품은 전남도 공식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자체브랜드(PB)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개발된 2중 기능성 앰플과 함께 전남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생달나무는 전남 자생 산림자원의 향장소재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자생 자원의 기능성 소재화 연구를 지속해 전남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56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장 보는 시민. /연합뉴스

농협전남본부, 2025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개최

상호금융대상 등 45개소 영예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5일 "최근 전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종합업적평가 및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전남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조합원을 위한 경제·교육·신용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축협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종합업적평가 우수 농축협 21개소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축협 24개소 등 총 45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앞서 전남농협은 지난 10일 중앙본부에서 개

최된 종합업적평가 및 상호금융대상 최우수 농축협에 ▲종합업적 15개소 ▲상호금융 8개소가 수상하며 전남 농축협의 저력을 자랑한 바 있다.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농가와 농촌경제가 위급한 상황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경영관리로 건전 결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농기센터,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 개설

7월 개관...1·2기 교육생 40명 모집
창업보육센터 연계 상품기획·마케팅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 활성화와 예비 창업자의 체계적인 준비 지원을 위해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 과정'을 개설, 1·2기 교육생 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추진한다. 예비 창업

자가 창업 준비부터 실전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총 2기로 나뉘어 운영된다. 1기는 4~5월, 2기는 8~9월 진행하며 기수별 20명씩 선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식품 가공 기초 및 상품 기획, 식품 위생 및 인허가 절차, 식품 가공 원리 및 제조 실습, 유통시장 분석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이다. 특히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는 공유주방 형태의 시설로 교육과 연계해 예비 창업자가 제품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제 제품 생산·판매를 통해 창업 가능

성을 검증하고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1기 23~31일, 2기 7월6~14일까지다. 식품가공 및 창업에 관심 있는 광주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신청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교육마당-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개관과 연계해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부터 판로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남광주농협,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 촬영 실시

원로조합원 100명 대상

부모님과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도왔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원로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의상준비를 도왔고,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맛있는 떡과 다과를 준비하며 고향 원로조합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안태호 기자

남광주농협은 25일 "지난 25일 남광주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원로조합원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며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원로조합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진행했으며 여성조직인 농가주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